



“검증할 수 없는 것은 지식이 아니다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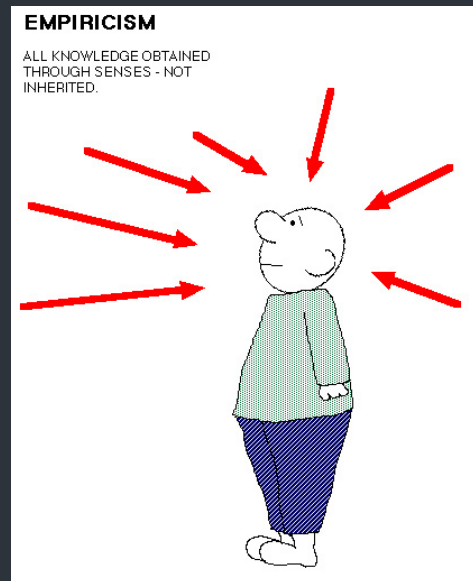
논리실증주의의 형성과 검증주의

2014년 3월 13일 정동욱

논리실증주의(Logical Positivism)

- ▶ 1930년 경 자신들을 비엔나 모임(Vienna Circle)이라고 불렀던 일군의 철학자, 과학자, 수학자들의 관점을 특징짓는 말
- ▶ 과학적 철학으로 출발, but 현대 과학철학의 출발점
- ▶ 논리적 분석 + 실증주의(or 경험주의)

p	q	$p \wedge q$
T	T	T
T	F	F
F	T	F
F	F	F



논리실증주의(Logical Positivism)

▶ 주요 인물

- ▶ 모리츠 쉐LIK, 루돌프 카르납, 오토 노이라트, 허버트 파이글, 필립 프랑크, 한스 한, [칼 험펠(베를린)]

▶ 사상적 계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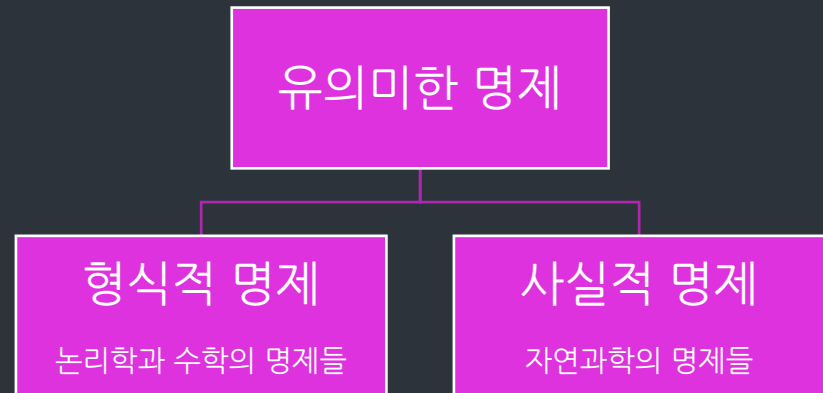
- ▶ 데이비드 흄, 비트겐슈타인, 에른스트 마흐
- ▶ 상대성/양자 혁명, 모더니즘 운동

▶ 핵심 주장

- ▶ 형이상학의 배격
- ▶ 논리적 분석으로서의 철학

형이상학의 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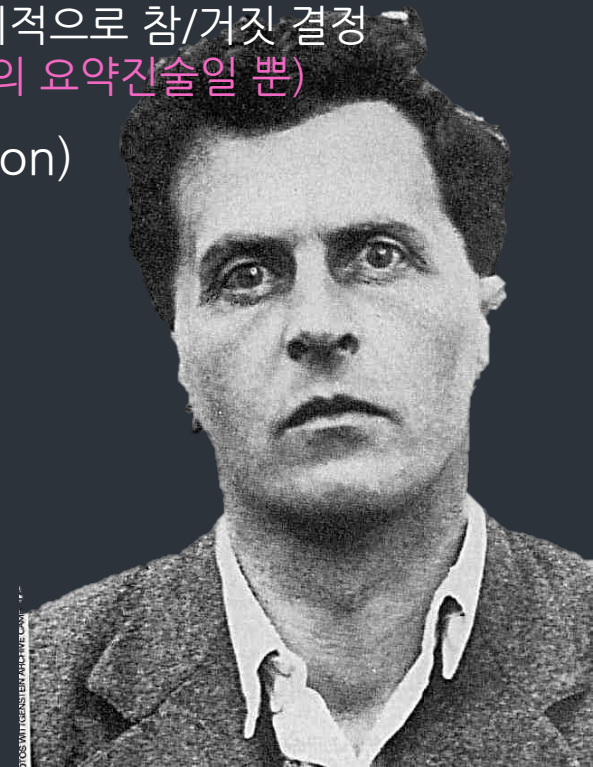
- ▶ 우리가 이러한 원칙을 접수하고서 도서관으로 달려갔을 때 어떤 소동을 일으켜야 하는가? 손에 아무 책이나, 예컨대 신에 관한 책이든 강단 형이상학에 관한 책이든, 집어 든다면, 이렇게 물으라: 그것은 양이나 수에 관한 어떤 추상적인 추론을 담고 있는가? 아니다. 그것은 사실이나 존재의 문제에 관한 어떤 실험적인 추리를 담고 있는가? 아니다. 그렇다면 그것을 불에 던져 버려라. 그것은 궤변과 착각 이외의 그 어떤 것도 담고 있을 수 없으므로. (데이비드 흄, 《인간 오성의 탐구》 중에서)



비트겐슈타인의 논리적 분석

- ▶ “원자적” 기초진술과 “분자적” 복합진술의 구분
 - ▶ 기초진술 : 단순한 사실과의 대응에 의해 참/거짓 결정
(논리실증주의자들은 이를 ‘관찰보고’로 취급)
 - ▶ 복합진술 : 기초진술들의 조합에 의해 논리적으로 참/거짓 결정
(자연과학의 법칙들은 기초진술들의 조합의 요약진술일 뿐)
- ▶ 동어반복(tautology)과 모순(contradiction)

p	$\sim p$	$p \vee \sim p$	$p \wedge \sim p$
T	F	T	F
F	T	T	F



연습해보기


▶ $\sim p \rightarrow (p \rightarrow q)$

▶ $(p \wedge q) \rightarrow \sim p$

▶ $(p \vee q) \rightarrow q$

의미의 검증 이론

- ▶ 유의미한 진술 = 검증(참/거짓의 결정)이 가능한 진술
 - ▶ 동어반복 : 논리적 분석으로 참 결정 (세계와 무관)
 - ▶ 모순 : 논리적 분석에 의해 거짓 결정 (세계와 무관)
 - ▶ 사실적 명제 : 그 명제가 허용하는 단순한 사실과 허용하지 않는 단순한 사실들로 분석되며, 결국엔 그에 대한 경험적 조사에 의해 참 또는 거짓 결정 (세계와 관련)
경험만이 의미있는 실질적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원천!
- ▶ 무의미한 진술 = 검증이 불가능한 진술
 - ▶ 형이상학적 진술 : 기초진술로 분해될 수 없기에, 즉 어떤 사태를 허용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, 애초에 무의미하다.
예 : “시간은 비실재이다”

- 
- ▶ “이성은 실체이며, 동시에 무한한 힘이자, 자연적 삶과 정신적 삶의 근저에 있는 이성 자신의 무한한 질료다. 또한 그 질료를 움직이는 무한한 형식이기도 하다. 이성은 모든 사물의 존재가 그로부터 비롯되는 실체다.”
 - ▶ 심오한 철학?
 - ▶ No! 헛소리(nonsense)!



명제의 의미 = 명제의 검증 방법

그 명제가 언제 참이 되는지 안다면, 명제를 이해한 것이다.

검증 원리의 성격

- ▶ 검증 원리는 검증가능한가?
 - ▶ 검증 불가능! 따라서 무의미한 명제!
 - ▶ 비트겐슈타인의 대응 : 해명적 기능 있음. 나중에 건너차야 할 사다리이지만, 그 덕분에 올라서서 세계를 똑바로 볼 수 있다.
- ▶ 검증 원리의 이중적 성격
 - ▶ 기술적 성격 : 사람들이 이미 널리 채택하고 있는 기준을 제시
 - ▶ 규범적 성격 : 사람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올바른 기준을 제시
- ▶ 검증 원리를 올바른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있는가?
 - ▶ 증명된 것은 형이상학적 진술들이 형식적 명제나 사실적 명제와 다른 범주에 속한다는 것일 뿐, 그것들이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결론은 따라나오지 않으며, 무의미하다는 결론도 쉽게 나오지 않음.

철학의 역할

- ▶ 해명적 작업 : “철학의 목적은 사고의 논리적 명료화이다. 철학은 이설이 아니라 활동이다. [그] 결과는 ‘철학적 명제들’이 아니라, 명제들이 명료해짐이다.” “말해질 수 있는 것 ... 이외에는 아무 것도 말하지 말고, 다른 어떤 사람이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말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, 그가 그의 명제들 속에 있는 어떤 기호에다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못하였음을 입증해주는 것이 본래 철학의 올바른 방법일 것이다.” by 비트겐슈타인
- ▶ 논리적 분석 : “철학은 과학의 논리학으로 대치되어야 한다. 이것은 철학이 과학의 개념들과 문장들에 대한 논리적 분석으로 대치되어야 함을 뜻한다.” by 카르납

논리실증주의 : 모더니즘 운동

- ▶ 장식에 대한 혐오
- ▶ 기초적 색상과 형태로부터 복잡한 구조물 설계





여러 난점들

- ▶ 기초진술 개념 : 사적 경험 vs. 공적 사건
- ▶ 과학의 법칙도 엄밀하게는 검증 불가능